

11월의 계란전망

강재명
본회 지도조사부 과장

“전반적인 호황세 지속 예상”

최근의 가격안정을 가져온 까닭은 무엇일까. 불황으로 인한 병아리 입식수수의 감소로 계란생산량이 줄은 탓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전에는 값만 오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입식하는 돌격대형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경기의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제의 미덕형이 많아 향후 계란값 안정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낙관한다.

우리 생산자의 의식구조가 나아진 것 보다는 현재의 여건이 만들어 낸 느낌을 준다. 체란업에 대한 경기불투명, 신규투자자에 대한 확신감 결여, 폐업 산란농가의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앞으로도 적정규모 유지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9, 10월의 사료생산량 추세로 보아 11월 또한 그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9월 산란사료 생산실적을 보면 초생추사료는 4,062%으로 '88년에 비해 26% 증가하고 '87년에 비해서는 16% 감소했다.

육추사료 총량은 25,567%으로 '87, '88년에 비해 각각 1%, 150%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산란사료는 119,424%으로 '88년에 비해 5% 감소로 '88년 특란값이 동기간 58원 유지된 것으로 봐 금년도 계란값 호황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계(P·S) 입식현황은 9월까지 누계가 38만1천수로 전년동기 누계보다 40% 가까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90년에 들어서도 실용계 산란용 병아리는 공급과잉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10월의 계란값이 예상보다 좋았던 관계로 11월 또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 같다.

금년 상반기 입식된 계군으로부터 계란생산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어 계란값 약세로 점쳐졌으나 워낙 작년도 입식물량이 적었고 환우계 또한 예년에 비해 적어 계란생산은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밑도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계란 특란값이 70원에 육박하는 시세에서는 큰 폭의 생산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순 이후 계란값이 다소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계란값은 당분간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입추수수는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무리한 환우는 피하고 병아리 입식을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다.

우량종추분양
봉래농장
(02)511-0038, (0417)63-8402

표 1. 산란용 P.S 입식현황

(단위: 천수)

년도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비고
88	52.0	21.5	16.1	27.9	65.6	38.4	8.3	41.9	2.9	24.0	49.4	55.6	403.6	실제입추수수 (수입계포함)
89	84.9	40.1	23.5	41.6	56.1	28.4	20.4	14.8	67.5					
89	45.3	31.8	28.7	68.6	49.4	25.4	25.8	17.0	21.5	16.5	27.8	50.8	408.6	89년국내P.S 생산계획량

그림 1. 대란고사가격(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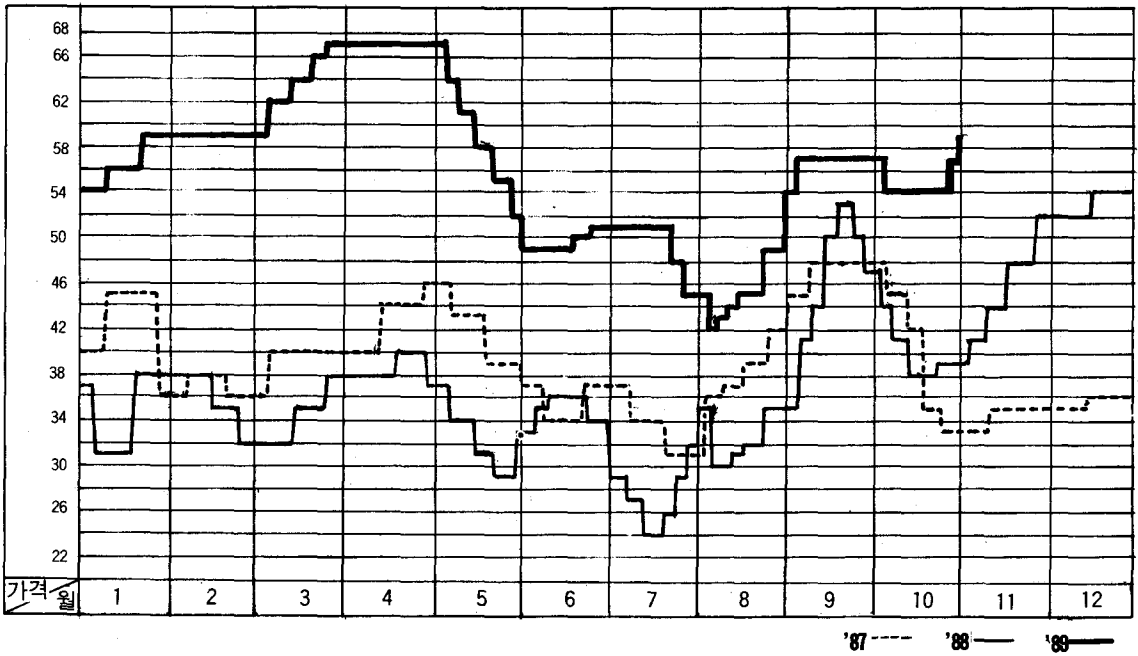


그림 2. 배합사료 생산실적

